

우승 → 8위 ‘뼈아픈 교훈’... ‘운영의 묘’를 살려라

KIA, 2025 시즌이 남긴 과제들

뼈긋거린 공·수·주... ‘마운드 안정’ 최우선 재정비 완료
‘포지션 안정화·체력 고려 뎀스 운용·조직력 강화’ 과제
경기흐름 관통하는 폭넓은 시야·맞춤형 전술 보완해야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2026시즌 준비는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다.

주축 자원들의 이탈로 선수단 구성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구단은 즉각 영입보다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조 아래 전력의 전체 틀을 먼저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마운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기존 자원을 유지했고, 일부 공수에서 발생한 공백은 외국인 선수와 아시아쿼터 카드로 보완했다. 내부 FA 조상우와의 협상 테이블이 아직 남아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구단의 행보는 선수 추가보다 전력의 방향 설정에 집중해 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운용’의 문제로 옮겨 간다.

지난 시즌을 돌아보면, KIA의 성적 하락은 단순한 선수 구성의 문제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2년 연속 우승을 목표로 출발했지만 결과는 리그 8위였다.

시즌 초반부터 이어진 주축 선수들의 부상 이탈이 변수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모든 원인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경기 흐름을 관리하고 위기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운용상의 한계가 더 크게 남았다.

불펜과 수비는 안정감을 잃었고, 공격에서는 경기를 주도하는 힘이 부족했다. 팀이 어려울 때마다 이를 잡아줄 장면은 많지 않았다.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부분은 불펜이었다. 경기 후반 불안은 반복됐고, 이는 곧 승부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팀 불펜 평균자책점 5.22, WHIP 1.56, 불론세이브 11회. 주요 지표 대부분이 리그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특정 선수 몇 명의 부진으로만 차부하기에는 수치가 말해주는 바가 분명하다. 교체 타이밍은 적절했는지, 컨디션과 휴식 관리는 충분했는지, 계투진의 역할 설정은 명확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게다가 일부 자원에 대한 벤치의 신뢰가 결과적으로 어긋난 장면들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불펜 문제는 개인의 기량을 넘어 운용 전반을 돌아볼 여지를 남겼다.

수비 역시 마찬가지다.

KIA는 지난해 ‘2년 연속 실책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내·외야를 가리지 않은 잦은 실수가 마운드 부담을 키웠고, 이는 팀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부 핵심 포지션을 제외하면 잦은 로테이션과 교차 기용 속에 수비 안정감을 찾기 어려웠다.

이는 선수차원의 문제라기보다, 팀 수비를 어떻게 설계하고 유지했느냐의 영역에 더 가깝다.



지난해 11월 일본 오기나와에서 실시한 KIA 타이거즈 마무리캠프에서 이범호 감독이 선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포지션별 주전 확립, 체력 안배를 고려한 뎀스 운용, 조직력 강화는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다.

공격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KIA는 도루 시도와 추가 진루 성공률 등 주루 지표 전반에서 리그 하위권에 머물렀다. 상대 내야를 흔들거나 한 베이스를 더 가져가며 경기양상을 바꾸려는 시도는 제한적이었다. 이로 인해 득점면에서도 상대 배터리를 압박하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됐다.

한마디로 ‘한 점’을 쥐어짜는 이른바 ‘작은 야

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러한 공격 운용은 타선의 결정력 부족과 맞물리며, 승부처에서 주도권을 가져오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역시 특정 상황이나 단발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즌 전반을 관통한 소극적인 공격 운용 기조의 결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결국 2025시즌 KIA의 결과는 전력 구성보다 경기 운영 방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컸다.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나 라인업 구성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반복됐고, 경기를

읽고 조율하는 수뇌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됐다.

구단은 2026시즌을 앞두고 ‘보강’보다 ‘재설계’에 무게를 두며 전력의 짜임새를 조율하고 있다. 그 재설계의 핵심은 선수 명단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의 기준을 세우는 데 있다.

오는 22일부터 시작될 스프링캠프는, 이 기준이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를 확인하는 출발선이 될 수 있다.

／주홍철 기자



“광주·전남 명예 걸고 태극기 휘날려라”

전갑수·송진호 체육회장, ‘2026년 국가대표선수단 훈련개시식’ 참석...광주·전남 태극마크 격려

광주시·전남도체육회가 태극마크를 달고 2026년을 힘차게 시작하는 광주·전남 소속선수들을 격려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과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을 비롯한 광주시·전남도체육회 임직원들은 7일 오전 10시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벨로드로姆에서 열린 ‘2026년 국가대표선수단 훈련개시식’에 참석해 고향의 명예를 걸고 훈련에 임하는 국가대표선수들을 격려했다.

광주 소속 국가대표선수단은 17개 종목 31명(선수 27, 지도자 4)으로, 현재 진천선수촌에 입

촌한 선수단은 18명이다.

김국영(육상), 김종이(하키), 박삼열(레슬링), 박후성(역도) 지도자가 총무별 코칭스텝으로 합류했고 김경환(근대5종), 손현호, 안시성(이상 역도), 고승환, 이재성(이상 육상), 김지선(조정) 등 광주 소속 선수들이 진천선수촌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전남 소속 국가대표선수단은 7개 종목 9명으로 전원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 입촌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근대5종 2명, 복싱 2명, 수영 1명,

유도 1명, 펜싱 1명, 역도 1명, 육상 1명이다.

근대5종 서창완·김영하(전남도청)를 비롯해 복싱 박초롱·주태웅(이상·화순군청), 수구 한호민(전남도체육회), 유도 김지정(순천시청), 펜싱 권오민(해남군청), 역도 이현석(보성군청), 육상 세단뛰기김장우(장흥군청)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과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훈련개시식이 끝난 후 광주·전남 소속 선수 및 지도자들과 만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사를 전하고,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하는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7일 열린 ‘2026년 국가대표선수단 훈련개시식’에서 전갑수(왼쪽)·송진호 회장이 광주·전남 소속 국가대표들을 격려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체육회 제공〉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꿈을 키우는 공간”이라며 “광주를 대표해 국가대표로 훈련에 임하는 만큼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새롭게 시작된 국가대표 훈련의 출발선에 우리 전남 선수들이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남 선수들은 그동안 끊임없는 노력과 철저한 자기 관리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경쟁력을 높여 왔으며, 이번 훈련을 통해서도 굳은 의지와 집중력을 발휘하여 국민들께 진한 감동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도체육회장협의회 회장인 송진호 회장을 K-스포츠 실천 약속으로 이날 시·도체육회를 대표해 대표자 선서를 하며 자리를 더욱 빛냈다. /박희중 기자

아듀, 잠실실내체육관

프로농구 올스타전서 다양한 이벤트

KBL이 2025-2026 LG전자 프로농구 올스타전의 주요 이벤트를 7일 공개했다.

올 시즌 프로농구 올스타전은 오는 17-18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17일 전야제에서는 각 구단을 대표하는 아시아 쿼터 선수와 3년 차 이내 국내 선수가 대결하는 이벤트 게임이 펼쳐진다. 또 1대1 콘테스트, 3점슛 콘테스트, 덩크 콘테스트 예선이 진행된다.

18일 올스타전 본 행사 날엔 경기 시작 전 1대1 콘테스트 준결승이 열린다.

또 종합운동장 재개발로 철거 예정인 잠실실내체육관의 역대 명장면을 코트 매핑으로 연출한 ‘굿바이 잠실’ 콘셉트의 오프닝쇼, 올스타들의 입장 퍼포먼스로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올스타전 본 경기 1쿼터와 3쿼터 타임아웃에는 각각 3점슛 콘테스트 결승전과 1대1 콘테스트 결승전이 펼쳐지고, 하프타임에는 덩크 콘테스트 결승전이 예정됐다. 이 밖에도 작전타임에는 올스타 선수와 팬이 함께하는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올스타전 기간 경기장 외부에서는 올스타 굿즈샵과 푸드트럭이 운영된다.

경기장 로비엔 각종 이벤트 부스와 올스타 선수 포토라인으로 활영할 수 있는 포토이즘 부스도 설치된다. /연합뉴스

2026.01.18 SUN 1월 18일(일) 19:00			
시간	내용	비고	
11:30~	입장 무료개회	• 올스타 MVD 부스 • 스포츠메이커스(스포츠의 변화) 부스 • 포토존	
12:00~	점심 휴식		
12:00~15:00	입장 무료개회	• 올스타 MVD 부스 • 스포츠메이커스(스포츠의 변화) 부스 • 포토존 • 올스타 MVD 부스 • 스포츠메이커스(스포츠의 변화) 부스 • 포토존	
13:00	1v1 올스타전 1라운드	올스타전 1라운드	
13:30	올스타전 2라운드	올스타전 2라운드	
14:00	올스타전 3라운드	올스타전 3라운드	
14:30	올스타전 4라운드	올스타전 4라운드	
15:00	올스타전 5라운드	올스타전 5라운드	
15:30	올스타전 6라운드	올스타전 6라운드	
16:00	올스타전 7라운드	올스타전 7라운드	
16:30	올스타전 8라운드	올스타전 8라운드	

2025-2026 프로농구 올스타전 〈KBL 제공〉

“올해는 메이저 챔피언 도전”

영암 출신 유해란, 2025시즌 LPGA그린 적중률 1위...“퍼트는 보완해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유해란이 2025년 새해 목표로 ‘메이저 우승’을 내걸었다.

유해란은 지난 6일 “2019년부터 작년까지 해마다 1승 이상 계속해오고 있다”며 “그 감사한 기록에 올해도 승수를 추가하면 좋겠고, 된다면 메이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의욕을 내보냈다.

2020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신인상, 2023년 LPGA 투어 신인상을 휩쓴 유해

란은 2019년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이후 2025년까지 해마다 1승 이상을 달성했다.

2승을 올린 시즌은 2021년이 유일하고, 미국에 진출한 2023년부터 3년 연속 1승씩 차곡차곡 쌓았다. 2025시즌에는 5월 블랙데저트 챔피언십을 제패했다.

다만 한국 또는 미국에서 메이저 대회 우승이 없는 것이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이다.

그는 “메이저 우승에 대한 생각은 예전부터



유해란이 지난 6일 매드캐토스 컨트리클럽 플래그십스 투어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있었다”며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지 않겠느냐”고 웃어 보였다.

그는 2025년을 돌아보며 “사실 2024년까지는 저에게 골프가 전부였다”며 “작년에는 요리도 많이 해보면서 골프 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졌다. 골프 선수로서는 아쉬운 성적이었지만 사람으로서의 성장한 것 같다”고 자평했다.

지난 시즌 LPGA 투어 그린 적중률 1위(77.5%)에 오른 유해란은 “수치상으로는 그린에 많이 올렸지만, 버디 기회는 많이 못 만들었다”며 “제가 퍼터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 더 정확한 아이언샷을 쳐야 한다”고 밝혔다.

보완할 점으로 퍼트를 꼽은 그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다”며 “작년 4월부터 제로 토크 퍼터로 교체했고, 퍼트할 때 자신 있게 칠 수 있는 영점 조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